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들, 녀성과학자가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심가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희동지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행사 대표들, 건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과학자, 교육자, 청년학생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태양절건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측

거리완공의 장쾌한 승전포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천만군민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보고이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더욱 환희롭게 장식하는 경축의 축포성이라고 말하였다.

려명거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고의 문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안겨주려는 어머니당의 뜻이 응축되어있는 인민사랑의 영원한 기념비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직 당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을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3월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렬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신데 이어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명세를 다지신 봉남산에서 조선혁명의 렬명이 밝아온다는 의미를 담아 거리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해 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렬명거리건설 전투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동원전을 전투지휘하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살림집 및 공공건물설제로부터

전력체계구성과 불장식, 원림복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형성안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력량전성과 시공, 자재보장 등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고 필요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연설자는 올해에도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어 뜻깊은 태양절까지 공사를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렬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인민들에게 태양절까지 렬명거리건설을 끝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우리 인민들과 또 하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하신 영상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에서 혁명하는 보람과 생의 희열을 찾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시라고 격정을 리치었다.

그는 금수산지구에 펼쳐진 이 희한한 전원은 렬명거리건설을 맡기하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총정과 애민현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3 면으로 계속

